33괘 - 천산둔 - 221111

전체 : 둔은 형통함이 작다. 이로운 것은 정貞하는 것이다.

1효 : 처음에 음이 오니, 물러나는데 맨 꼬리여서 위태로운 상이다. 갈 바를 두지 말라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(또) 오니, 황소의 가죽(끈)으로써 붙잡아매는 상이라 벗어나지 못한다.

3효 : 양이 세 번째에 오니, 물러나려던 것을 붙들어 매던 태도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니 위태롭다. 신하臣와 첩妾을 길러두는 것이 길하리라.

4효 : 양이 네 번째에 (또) 오니, 좋게 물러날 수 있는 시점이다. 군자는 길하나 소인은 막히리라.

5효 : 양이 다섯 번째에 (또) 오니,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시점이다. 정貞하면 길하리라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왔으니, 투박하게 물러나는 시점이다. 불리할 것은 없다

전체 : 둔은 '달아나다[遁]', '은둔하다', '물러나다', '발을 빼다' 등의 뜻을 갖는다.  
“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", "박수칠 때 떠나라”는 말이 있다. 둔은 이처럼 물러날  
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, 그로 인해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. 또한 발을 빼야 할 때 뺄 줄 아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. 이처럼 둔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, 즉 때를 알고 제때에 물러나는 것, 발을 빼야 할 때 뺄 줄 아는 것은 참 어렵다.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물러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, 때를 알고 발을 빼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것이 둔의 도다